

기 때문이다.

제자: 어떤 때 꿈을 꾸면 현실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부: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이튿날에 마치 그런 것 같고, 또 며칠이 지난 후에 이 일이 정말로 나타났다. 또는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일을 할 때, 내가 마치 전에 이 일을 했던 것처럼 느껴지고, 기억 중에서 해보지 못했지만, 또 자신이 언젠가 이런 일을 해본 것으로 느끼는데 많은 사람이 모두 이런 감각이 있을 수 있다. 당신의 생전이나 아주 일찍이 이전에 이런 일을 해보았다면, 그것 역시 아마 당신이 앞당겨 당신에게 곧 발생할 그 일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보았다면 곧 이런 원인이다.

제자: 어떤 때 진(眞)과 인(忍)이 충돌되는데, 예컨대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진(眞)에 의해 지적해야 합니까, 아니면 참아야 합니까?

사부: 여전히 내가 한 그 한마디 말이다. 한 연공인으로 德(더)를 지키지, 德(더)를 잃지 않는다. 현재의 속인은 이미 모두 이렇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변했다. 이것은 속인의 일이기에 당신 역시 상관

속 높은 과위에서 원만에 이르면 더욱 높은 세계가 있다.

제자: 사람이 이 물질공간에 떨어져 내려오게 됨은 정(情)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부: 다 그런 것도 아니다. 위에는 정이 없다. 삼계(三界) 내에만 정이 있다. 당신이 떨어져 내려오게 된 것은 당신이 위의 표준에 부합되지 않게 변했기 때문에 비로소 떨어져 내려온 것이다. 속인의 이 공간에서 정은 가장 중하다. 정은 집착심이 생기는 근본이다.

제자: 어떻게 부체와 元神(웬선)을 구별합니까?

사부: 당신은 지금 분별하지 못한다. 늘 이런 일에 흥미를 느끼지 말라. 그 부체와 당신의 신체는 같은 크기로 표현되고 당신 자신의 예전의 신체도 금생에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전세(前世)의 신체인지 또는 부체인지 똑똑히 분별하기가 몹시 어렵다. 어떤 부체는 신체 속에 있고 어떤 것은 외면에 있다. 머리에 쪼그리고 앉은 것, 어깨에 웅크리고 앉은 것, 또는 목 뒤에 엮드린 것, 이것은 구분하기가 비교적 쉽다. 신체 속에 엮드려 있는 것이라면 당신이 명확히 분별하지 못한다.

대법을 수련하는 사람은 모두 그 무슨 부체와 관련된 일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런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제자: 부처님 위에 계시는 분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사부: 무슨 부처 위에 계시는 분인가? 일반적인 속인은 영원히 그렇게 높은 일을 알게 할 수 없다. 대체로 나는 불도(佛道) 양 대가(兩大家)를 말했다. 그들의 위에 역시 불(佛)이며 역시 도(道)이다. 당신이 그것을 지식으로 삼는다면, 당신이 이 문을 나서고 이 학습반을 나서서 며칠 되지 않아 당신은 점차 아무것도 다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한 이런 것을 당신은 다만 대체로 알 수 있으며 아울러 당신은 얼떨떨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못한다. 수련할 수 없다면 머리의 기억 속에서 곧 그것을 지워버린다. 속인이 이런 것을 아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자: 불법 중에서 정(情)의 진정한 함의는 무엇입니까?

사부: 우주 대법, 우주 특성의 최저 층차의 일종 요소이다. 우리는 이전에 줄곧 이 근본적인 것을 말하지 않았다. 불교에서는 이 집착심 저 집착심, 모두 집착심을

가? 하나하나가 모두 눈을 부릅뜬 냉정한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다. 만약 사람이 이 정을 없애버렸다면 자비심이 나타난다. 무엇 때문에 대각자는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그는 자비가 있고 그는 중생을 가련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제자: 다리를 틀어 올리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 잠을 잘 때 반듯이 누워서 다리를 틀어도 됩니까?

사부: 우리는 다리를 누른다거나 스스로 무슨 방법을 취하여 다리를 연습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들이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 외 이 면에 업력을 빚지고 있는 사람, 또 수련해도 아주 느린 사람이 있는데, 늘 제고하지 못하고 오성도 올라오지 못하며 그는 동작만 연마한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가 정말 무엇으로 누르거나 또는 그 무슨 강화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뚝’ 하고 단번에 뼈가 부러질 수도 있다. 그러면 또 우리에게 매우 큰 손실을 조성할 것인즉, 다른 사람들은法輪大法(파룬파파)를 연마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편일률(千篇一律)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매 사람의 각종 상황이 아주 복잡하

한 것,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얻어내려는 것이며 당신의 신체에서 얻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돈을 벌었다고만 보지 말라.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물론 사람에게 재물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이것은 복잡한 원인으로서는, 빌어서 온 것이 아니며 자신이 전세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제자: 친정(親情)·애정·우정과 자비심에서 생겨 나온 사랑 사이의 척도를 응당 어떻게 가늠해야 합니까?

사부: 당신은 지금 사람이 정이 없으면 어떤 기분인가를 아직 체득하고 관찰해 내지 못하는지라, 또 무엇이 자비인지를 모른다. 당신이 지금 상상하는 자비는 여전히 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체득하고 관찰하지 못한다. 사람의 그 무슨 질투심·환희심·쟁투심, 무슨 불복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어쨌든 각종 욕망·각종 집착을 다 제거해야 한다. 즐기는 것과 즐기지 않는 것, 무슨 일을 하는 것, 애호와 애호하지 않는 것, 무엇을 먹으려고 하고 무엇을 먹으려 하지 않는 것, 기쁘면 어떨어떨하고, 기쁘지 않으면 어떨어떨한, 일체가 모두 이 정에서 온 것이다. 사람은 곧 이 정을 위해 살고 있다. 그럼 정이 없이 사는 고급 생명, 그것은 어떤 모양인

말하는데 우리 여기에서도 각종 집착심을 말한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집착심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았다. 우리 여기에서는 여러분에게 말했다. 바로 정이 있기 때문이라고. 물론 수련하여 정과를 얻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정을 마땅히 버려야 한다.

제자: 연공할 때 혀로 다리를 놓을 것이 필요한데 틀니를 해서 다리를 놓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부: 틀니를 한 것은 영향이 없다. 당신이 입에 알루미늄판을 물고 있다 해도 역시 상관없다. 공이 모두 당신에게 꿰뚫어 줄 것이다. 이것은 상관없다. 우리는 기를 연마(練)하는 것이 아니라 공을 연마(煉)하는 것이다.

제자: 사부님의 전세(前世)는 누구입니까?

사부: 나는 바로 리홍쯔(李洪志)이다. 나는 석가모니 부처가 아니다.

제자: 사부님께서 이전의 강의 중에 언급하신 법륜성왕(法輪聖王)과 석가모니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에서 언급한 법륜성왕(法輪聖王)은 한 사람입니까?

사부: 역사적으로 석가모니부처는 확실히 법륜성왕(法輪聖王)을 언급했다. 과거에 석가모니부처는 여러 차례法輪(파룬)과 법륜성왕(法輪聖王)의 일을 말했다. 후세사람들이 석가모니부처가 말한 이런 일을 회억할 적에 이미 그것을 전면적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후세사람 역시 석가모니부처가 말한 원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고 왜곡된 풀이가 발생했다. 나중에 또 무슨 은륜(銀輪)·철륜(鐵輪)·동륜(銅輪) 등의 말이 생겼는데 모두 후세사람들이 꾸며낸 것이다. 석가모니부처가法輪(파룬)을 어떠한가 돌렸다고 말하는데, 그 일은 석가모니부처 자신이法輪(파룬)을 돌렸다고 말한 것이 전혀 아니다. 석가모니부처는 장래를 예견하고, 이런 일이 미래에 발생할 것임을 보았으며 알고 있었다.

제자: 밤에神通加持法(선통자츠포)를 연마하려고 가부좌를 하기만 하면 곧 피곤하여 자고 싶은데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사부: 이것은 절대 안 된다. 반드시 이 나쁜 버릇을 극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련한 것이 아마 당신 자신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수련해야 한

光)해 줄 수 있습니까?

사부: 관공은 역사적으로 불교에서 그를 가람보살(伽藍菩薩)이라 하지만 사람이 모셔낸 것이다. 그럼 무엇 때문에 도가 역시 관공을 모시는가? 그것은 그의副元神(푸웬션)이 수련된 것이다. 또 일부 장사를 하는 사람도 관공을 모시며 그를 재물신(財神)으로 여기지만 위에는 전부 사람이 모셔낸 것이거나 또는 부체동물이다. 당신이 나의 법신으로 개광하려고 함은 무엇 때문인가? 부처는 당신이 돈 버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다. 아마 당신이 난(難)이 있을 때, 부처, 보살은 당신을 도울 수 있고, 또 그런 근기가 좋거나 수련하는 사람을 돕는다. 진정으로 당신을 구원해 속인 이 고해(苦海)에서 이탈하라는 것이지, 당신에게 돈을 벌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 사람이 아무 병도 없고 어떤 난(難)도 모두 없어, 편안하고 편안하여 신선보다 더 편안히 지낸다면, 당신에게 수련하라고 해도 당신은 하지 않을 것인즉, 여전히 고생을 겪어야 한다. 그 무슨 극락세계로 가는가? 이러함이 아주 극락인데 어디 이런 일이 있는가. 사람이 생생세세에 지은 업을 갚지 않아서야 되는가? 업을 갚아야 하는데 어찌 편안한 나날을 지낼 수 있는가? 사실 그렇다면 당신이 모셔낸 이런 것, 또는 그런 부체, 이런 난잡

로 줄곧 당신이 원만에 이를 때까지 전반 수련과정에서 모두 이러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줄곧 원만에 이를 때까지 당신이 법에 대해 확고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문제가 모두 체현될 수 있으며 이 면에 대한 고흘이 나타날 수 있다. 당신이 근본적으로 법을 모두 믿지 않는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다 말할 바가 못 된다.

제자: 중하(中下) 근기의 사람을 말한다면, 극락세계와 法輪世界(파륜쓰제)를 비교해 어느 것이 수련하기 쉽습니까? 우주의 중간대도(中間大道)에서 수련하면 빠릅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수련하면 빠릅니까?

사부: 대법수련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수련과정에서 당신이 어떻게 수련하든지 모두 마찬가지로 요구하는 것이며 표준 요구는 같은 것이다. 얼마만큼 높이 수련하면 당신은 그만큼 높은 층차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종교에서는 과위라고 하는데 그만큼 높은 과위를 얻은 것이다.

제자: 광저우(廣州)의 아주 많은 사람이 관공(關公)을 모시고 있는데 사부님의 사진으로 관공에게 개광(開

다. 앉기만 하면 잔다면, 사실 연공하지 않고 앉아서 자고 있음에 불과하다. 이 역시 교란이다.

제자: 극락정토의 중생은 번뇌가 없고 시련이 없는데 어떻게 수행합니까?

사부: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번뇌가 없으면 수련할 수 없다. 그 때문에 극락세계에서는 수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제자: 선생님 법신의 법호(法號)는 무엇입니까?

사부: 나의 법신은 바로 나로서 일체(一體)이다. 이것이 잘 이해되지 않겠지만, 그 무슨 법호가 없이 곧 리홍쯔(李洪志)이다.

제자: 수련 중의 의문을 저희가 수련을 비교적 잘했다고 인정하는 노(老)수련생과 탐구할 수 있습니까?

사부: 수련생 사이에 서로 탐구하는 이것은 문제가 없으며 아주 좋다.

제자: 일을 할 때 무의식중에서 앞이마 두 눈썹 사이에 분홍색 빛·남색 빛·은백색 빛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

은 무엇입니까?

사부: 이것이 바로 천목이 열리는 현상으로 각종 현상이 많고도 많다. 어떤 사람은, “우리 이 에너지는 빛인데 어떻게 나의 신체 속에서 존재하는가?”라고 말한다. 나는 어제 쪽지 하나를 보고 미처 대답하지 못했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빛으로 보이는 것은 천목 층차가 높지 못하여 본 표현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그 물체는 무척 진실한 물질이다. 당신의 천목 층차가 높지 못한 상태에서 본 다른 공간 속의 생명체는 마치 빛과 같다. 왜냐하면, 그 생명체의 에너지가 크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천목 층차가 아주 높다면, 당신은 그쪽의 물체가 당신이 눈으로 본 이쪽의 물체에 비해 더욱더 진실함을 발견할 것이다. 그 때문에 과거의 수련인은 속인 사회를 허상이라고 말했다.

제자: 사부님께서서는 일체 집착심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부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이 자체가 곧 집착심이 아닙니까?

사부: 이 사람은 흐리멍덩하구먼! 한 사람이 물속에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 그를 구하는 이것이 집착인가? 나는 당신을 제도하러 온 것이지, 내가 수련하려고 온

치가 있는 것이라면, 별개의 일이다. 그 밖에 늘 난(難)이 있다면 또 아마 갇고 있거나 어떤 인연관계가 있는 것인데, 수련하는 사람이 마음을 여기에 쓴다면 나쁜 일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중의 인연관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공하는 사람에게 德(덕)을 지키고 무위(無爲)하라고 한다. 우리가 말한 것은 또 이런 한 층 뜻이 있다. 즉 속인이 德(덕)을 쌓고 德(덕)을 쌓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속인이 속인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그는 속인 그 층의 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수련 이 층의 법에 따르는 것이라, 이런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제자: 만약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진정하게 수련한다면 정과를 얻어 수련 성취될 때까지 사부님께서서 마난(魔難)을 배치하십니까?

사부: 그렇다. 사람은 수련과정에서 모두 난(難)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난은 자신이 만들어낸 업으로, 난(難)으로부터 당신 자신의 心性(심성)을 제고해야 한다. 당신은 각종 시끄러운 일에 부딪힐 수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연공인임을 체현해 내겠는가? 다른 사람과 같은 견식이 아니므

차가운 것이다. 연공은 소업(消業)이라, 일부 차고 추운 것을 느끼는데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 게다가 겨울이라 당신의 신체는 재빨리 단번에 개변될 수 없다. 그것 역시 불가능하다. 나중에 좋아질 수 있다.

제자: 자신이 이전에 心性(썸썸)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수련하려는데 그래도 늦지 않습니까?

사부: 지금 허다한 신(新)수련생들이 모두 방금 시작하여 수련하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마땅히 다그쳐야 한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은.

제자: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도와주면 자신의 업력을 德(더)로 전화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德(더)를 갖는 것인지?

사부: 당신이 어려운 사람을 보고 도와주면 선행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와 좋은 일을 할 때, 만약 이 일이 몹시 어려우면 당신이 고생을 겪을 수 있으며 당신 자신의 업력은 전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을 주동적으로 도와준 자 원적이라, 德(더)로 전화될 수 없다. 이 일이 일정한 가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이 일을 똑똑히 분별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나는 더욱 큰일을 한다. 단지 인간 세상에서는 설법함에 불과할 뿐이다.

제자: 중생을 널리 제도하고 고난을 벗어나려고 마음에 자비를 내는 이것을 정으로 인정합니까?

사부: 당신 지금의 기초 위에서 자비를 담론하는 건 실제로 정(情)의 작용이다. 자비는정이 아니다! 속인은정이 존재한다. 승화되어 올라간 다음정이 사라져야만 당신은 비로소 무엇이 자비인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자: 천목이 비교적 높은 사람이 늘 수련생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연마되었다고 알려주는데 어떻습니까?

사부: 그는法輪大法(파룬파파)를 파괴하고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이런 것을 듣고 믿지 말아야 한다. 한 사람이 연마한 것이 얼마나 높은지를 절대 마음대로 누구에게 말하게 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과시심의 작용에서 이런 일을 말하길 좋아하는데, 천목이 열려도 당신 역시 그가 얼마나 높이 수련되었는지 보지 못할 수 있다. 극히 특수하고 확실히

아주 괜찮은 사람은 정말 볼 수 있어도 그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서로 토의하면서 당신 어느 면에서 공이 어떠한고 어떻게 좋은 것을 연마해 냈다고 말하는 이것은 괜찮다. 당신 이 사람이 얼마나 높게 연마했으며, 내가 얼마나 높고 당신이 얼마나 높으며 그가 얼마나 높다고 하는 이것은 곧 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절대 그에게 이런 현상을 보게 할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의 집착심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서로 비교하면 서로 간에 그 어떤 현상이든 다 나타날 수 있다. 나는 여전히 이 한마디 말이다. 여러분들은 어느 때든지 모두 心性(썬썬) 수련의 높고 낮음을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心性(썬썬)이 높지 못하므로 비로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럼 心性(썬썬)이 높지 못하는데 공이 높을 수 있는가? 공이 높지 못하는데 똑똑히 볼 수 있겠는가?

제자: 신(新)수련생은 학습반에서 이미 사부님께서 주신 法輪(파룬), 氣機(치지), 법신을 얻었으며 모두 극히 진귀한 것입니다.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는 우주의 이치에 근거해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마땅히 무엇을 치러야 합니까?

사부: 그 법신은 당신을 보호하는 것이지 당신에게 준

제자: 무엇 때문에 아주 진심이던 사람이, 저와 法輪大法(파룬파파)에 대해 말을 나눈 후 法輪大法(파룬파파)의 공리(功理)에 대해 다소 의심하게 됩니까?

사부: 이것은 여러 면의 원인이 있다. 당신의 오성(悟性)이라든가, 당신의 사상업력, 자신이 이해한 것이 깊지 못하여 당신이 다른 사람과 말할 때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 역시 방금 배웠기 때문이다. 당신에 대한 교란은 아마 이 면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부의 교란이 아주 적으며 다 당신의 사상업력과 당신 자신이 대법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해 조성한 것이다. 게다가 다른 사람이 믿지 않음은 아마 당신으로 하여금 이 생각이 일어나게 했을 것이다.

제자: 겨울에 神通加持法(선통자츠파) 연마를 마치고 다리를 내려놓은 후 신체가 몹시 추운 감각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정상입니까?

사부: 초기 연공할 때 단번에 아주 높은 경지에 도달할 수 없다. 거기에 앉아 있으면 신체가 아주 편안하고 후끈후끈한데 초기에는 이럴 수 없다. 연공 초기 단계에 당신의 신체는 업력이 있는 것으로, 이것은 검은 것이고



제자: 저는 중학교 교사로 제 학생들에게 法輪大法(파룬파파)를 연마하도록 가르치고자 하는데 맞습니까?

사부: 그건 물론 맞는 것이다. 그렇게 높이 이해하지 못해도 여전히 신체를 단련할 수 있다. 진정하게 이 법을 이해할 수 있고 모두 좋은 사람이 되며 인심이 선해 진다면,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고 나는 말한다. 그가 만약 고층차로 수련하려 한다면, 당신은 또 큰 공덕을 쌓았다고 나는 말한다.

제자: 이사할 때 조심하지 않아 사부님의 사진을 닦다가 못쓰게 되어버렸는데 어찌해야 합니까?

사부: 무의식적이기에 누구도 당신을 탓하지 않을 것이다.

제자: 만약 우리 주위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저에게 연공에 관한 일을 물으면 그들에게 알려주고 또 그들에게 연마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까?

사부: 여러 사람이 이 소원이 있고 배우려 한다면, 당신은 가르치도록 하라. 남이 주동적으로 당신에게 묻는데도 가르치지 않겠는가, 법을 널리 선양하는 것이지 않은가.

것이 아니다. 사실 나는 당신에게 법을 얻게 하고 당신에게 수련하게 하며 당신에게 반본귀진(返本歸眞)하라고 한 것이라, 당신이 향상하는 이 마음을 요구한다.

제자: 밀종 중의 법륜(法輪)과 사부님께서 말씀하시는 法輪(파룬)은 구별이 있습니까?

사부: 같은 일이 아니다. 그것의 그 법륜은 의념(意念)일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의념이 통제하는 것이다. 우리 여기는 진정한 것이고 유형적이며 실체적인 것이다.

제자: 저는 홍콩에서 천단대불(天壇大佛)을 참관했습니다. 사부님께 여쭙건대, 지금 사회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불상을 만듭니까?

사부: 그것은 속인이 하려고 하는 일이다. 지금 이 불교에서 수많은 사람이 또 더욱 큰 절을 짓고자 하는데 이것은 모두 속인의 일이다.

제자: 만약 어떤 사람이 수련하여 원만에 이르렀다면 위에서 대사님을 볼 수 있습니까?

사부: 당신이 오직 진정하게 수련한다면 당신이 원만

에 이르지 않아도 당신은 모두 볼 수 있다. 물론 원만에 이르면 더욱 잘 볼 수 있다.

제자: 무엇이 전수(專修)제자입니까? 무엇이 진수(眞修)제자입니까?

사부: 전수(專修)제자란 바로 절의 그런 수련형식과 같은데 전업수련제자에 속한다. 진수(眞修) 제자란 바로 진정하게 수련하는 제자이다.

제자: 저는 학생인데 평상시에 가부좌하고 책을 보거나 숙제를 해도 됩니까?

사부: 평상시에 가부좌하고 책을 보거나 숙제를 하는 것은 다만 단일하게 당신이 다리를 틀어 올리는 것을 연습할 뿐 그것을 연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어쨌든 역시 좋은 점이 있다. 그 다리로 하여금 틀어 올리는 시간이 길게 할 수 있으나 다만 단일하게 다리를 연습할 뿐이다.

제자: 삼화취정(三花聚頂) 때 원영(元嬰)은 본인과 함께 큼니까?

사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삼화취정의 원영은 마

련제자가 아니므로 당신은 아마 어떤 일이나 다 나타낼 수 있다. 오, 어느 때가 되면 당신은法輪大法(파룬파파) 제자가 골절되었다고 한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골절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개별적으로 만약 전세에 이런 업을 빚었다면 역시 말하기가 몹시 어렵다. 그래서 주의해야 한다. 보도원(輔導員)은 신(新)수련생의 연공을 강화하지 말아야 한다. 강화하기만 하면 역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나의 일 처리 방법이 아니다. 대법 역시 스스로 마음이 개변될 것을 말하는데 강화한다면 곧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닌가? 꼭 이 문제를 주의해야 한다.

제자: 저는 일부 새로운 벗들에게法輪大法(파룬파파)를 소개한 후부터 자신의心性(썬썬)과 신체가 좋지 않음을 느꼈는데 다른 사람과 말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부: 이것은 당신 자신의 감각일 것이다. 일부 사람은 그가 배우려 하고 당신이 말하면 그는 곧 배우려 한다고 해서 당신이 그 무슨 상태가 좋고 나쁜 느낌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신체를 정화하는 상태이며 소업(消業)하는 현상이다.

부 정치문제와 관련된 것은 당신이 나에게 묻지도 말라. 우리는 정치에 간여하지 않고 국가 법규에 간여하지 않는다. 우리 연공인은 어떻게 해야 하고, 무위(無爲)란 어떤 것이며,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일을 우리는 모두 말했다.

제자: 사람마다 심법(心法)의 구속이 있어 인류가 불가정토(佛家淨土)로 됨이 가능합니까?

사부: 인류의 도덕수준이 모두 높아지는 이것은 가능하다.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필연적인 것으로서 지금으로 본다면 이리하다. 만일 모두 부처로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서, 사람의心性(심성) 높이가 같지 않고 감당 능력의 크기 역시 같지 않다. 인류사회는 꼭 존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에서 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대법 중, 가장 낮은 한층 법의 체현이기 때문인데, 천국처럼 될 수는 없다.

제자: 연공인이 만약 골절되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사부: 어떤 사람은 연공을 해도 호지부지하며 참답게 연마하지도 않고 또 그心性(심성) 요구에 따라 자신에게 요구하지 않는데 당신 역시法輪大法(파룬파파) 수

치 한두 살 되는 아이만큼 크며 또한 연마를 잘해야 한다. 어떤 것은 마치 몇 달 된 아기처럼 그만한 크기이다.

제자: 생명체의 생김은 우주특성과 동화되었기에 마땅히 眞(전)·善(싼)·忍(런)만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또 선천적인 성격이 있습니까?

사부: 성격은 사람의 개성이다. 이 사람은 아주 조금 해하고 성격이 비교적 급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빠르고 하고, 그 사람은 성격이 느긋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느리다고 한다. 성격은 곧 개성이라 이것은 별도의 일이다. 본원 물질이 나무나 철(鐵) 등 부동한 물체로 조합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같다. 그러나 특성은 모두 眞(전)·善(싼)·忍(런)이다.

제자: 선생님께서 하시는 대수인(大手印)은 법을 전하는 함의와 같은 것입니까?

사부: 그것은 비교적 높게 말했다. 어쨌든 사람이 법을 얻기가 쉽지 않고 이 연분(緣份)이 온 것도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다.

제자: 사람이 수련하여 그의 元神(웬션)을 낳아준 그의 부모가 있는 층차를 능가할 수 있습니까?

사부: 당신은 지금 허망한 생각을 하지 말라.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은 아직 당신이 지금 어느 정도로 낮은지 모르면서도 당신은 또 그렇게 높은 일을 감히 생각하고 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높이 수련할 수 있는가는 그 자신의 감당 능력을 보아야 하며, 그가 가진 이 德(더)와 업(業)이란 물질의 비율을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당신의 근기와 당신 자신의 인내능력, 이런 요소가 당신이 얼마나 높게 수련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는 곧 그렇게 높이 수련하고자 한다고 하지만 당신에게 그런 감당 능력이 없다면, 때가 되면 당신은 미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또 모두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다만 당신은 지금 사람의 사유일 뿐이다.

제자: 적등황록청람자, 유색 무색이 부동한 층차를 대표한다는데, 어떤 면에서 보아낼 수 있습니까? 만약 천목이 열리지 않았다면 얼굴의 피부 색깔에서 보아낼 수 있습니까?

사부: 그것은 보아낼 수 없다. 이것은 속인이 보는 일

제자: 사부님께서서는 전업수련제자의 수련은 화상이 사원에서 수행하는 것과 같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속인사회를 이탈하면 어떻게 心性(썬썬)을 연마합니까?

사부: 전업수련제자가 어떻게 수련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이 학습반에서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장래의 일이다. 전업수련제자도 속인 중으로 와야 한다. 과거의 화상은 행각이 있었는데, 속인 중에서 고생을 겪고 동냥해야 했으며 돈과 물건을 보존하지 못하게 하였다. 속인 중에서 행각하는 이것은 모두 속인 중에서 연마하는 좋은 기회이다.

제자: 결가부좌를 연마(練)할 때 먼저 발을 틀어 올린 다음 끈으로 고정하고 연마(練)할 수 있습니까?

사부: 이것에 대해 우리는 특수한 요구가 없다. 자신의 상태에 근거하라.

제자: 국가란 무엇입니까?

사부: 그 밖에 국가의 일, 속인 중의 구체적인 일을 묻는 것이 있는데 나는 당신에게 해석해 줄 수 없다. 일

하기가 몹시 어렵다.

제자: 사부님께서 저희 진수제자의 元神(주원선)을 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만, 어떻습니까?

사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나는 모두 하였다. 당신은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 일부의 일은 당신이 알지 못한다. 장래에는 당신들이 가장 좋을 것이다.

제자: 이전에 어떤 사람은 관음의 향으로 사전에 일을 예견했는데, 지금 사부님의 법상으로 관음상을 개광한 다음 향보(香譜)를 그냥 쓸 수 있습니까?

사부: 당신이 그 향보를 사용하여 뭘 하는가? 그것은 속인의 방법이 아닌가? 수련하는 사람인 당신이 무엇을 사전에 알고자 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알고자 하는가? 당신이 난(難)이 있는지 알고 싶은가? 당신이 피하려고 하는가. 피했다면 당신은 제고하지 못하는데 그럼 또 어떻게 수련하겠는가? 당신이 돈을 벌 수 있는지 보려는가? 당신이 일을 잘하고 사업을 잘하거나 장사를 크게 하면 자연히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모두 속인의 일로서 대법 수련자가 할 행위가 아니다. 물론 소도(小道)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이 아니므로 사람의 눈으로는 보아내지 못한다.

제자: 저는 이전에 모모(某某) 공을 배워 편차(偏)가 생겼고 늘 물체가 제 체내에서 마구 쏘다니며 기로에 잘못 빠져들어 갔습니다. 지금法輪大法(파룬파파)를 수련하고자 결심했지만 꿈에서 모모가 와서 교란하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부: 당신이 무엇을 수련하고 무엇을 연마하려 하는가는 당신의 이 마음에 달렸다. 모두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대법을 수련하려는 마음이 아주 확고하다면 누구도 교란하지 못하며 또다시 교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나도 허용하지 않는다.

제자: 元神(원선)이 아주 젊다면 아주 높이 수련할 수 있습니까?

사부: 이것은 元神(원선)이 젊고 젊지 않고, 늙고 늙지 않은 이것에 있지 않다.

제자: 대법을 들은 후 수련은 아주 긴박한 일임을 알았는데 어떻게 해야만 비로소 용맹정진하는 대인지심(大忍之心)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까?

사부: 참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로 참을 수 있는지, 그것은 모두 당신 자신이 결정한다. 참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그 무슨 훈련이 없으며 그것은 모두 당신 자신이 고생을 겪는 중에서 감당능력을 보아야 한다. 마음에 법이 있고 자비롭게 주위의 일체를 대한다면, 어떤 일에 부딪혀도 좀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 功身(공션)과 법신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부: 당신들은 功身(공션)이 있을 수 없으며 나중에도 있을 수 없다. 수련하여 원만에 이른 후 오로지 법신이 있을 수 있을 뿐이다. 우주 중의 일체 생명은 모두 功身(공션)이 없다.

제자: 각종 마음을 버리는 고행을 世間法(쓰젠파)에서 한 번씩 지난다면, 出世間法(추쓰젠파)에 이른 다음에 한 과위에 이르렀을 때마다 한 번씩 지나는지, 아니면 한 과위의 상, 중, 하층에서 각기 한 번씩 지나는지입니까?

사부: 수련 과정에 있는 사람, 당신에게 대체로 배치해 주는 이 길 전반은 바로 당신의, 개오할 때까지의, 한 수련과정으로서, 이 수련과정에서 당신의 모든 마음을

전부 다 제거한다. 그 무슨 世間法(쓰젠파)에 그런 한 층이고 出世間法(추쓰젠파)에 그 한 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줄곧 당신이 원만에 이를 때까지 모두 이렇게 당신에게 배치한 것이다.

제자: 우주 중의 성(成)·주(住)·괴(壞)는 바로 모든 나쁜 것을 전부 터뜨려 버리고 다시 새롭게 조합하는 것입니까?

사부: 예전에는 이런 것으로서 나쁜 것을 없애버리고 다시 만들었다. 인류는 여러 차례 휘멸되었던 것인데 일부 사람은 역시 이해하지 못한다. 당신은 속인의 각도에서 이런 문제를 고려할 수 없다. 나는 그날 하나의 이치를 말했는데, 무척 높고 무척 높은 층차의 그 불도신(佛道神)이 사람을 보면 그것은 그야말로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무척 높은 그 대각자(大覺者)가 여래(如來)를 보면 모두 속인으로 보이고, 더욱 높고 더욱 높은 그 대각자, 그가 만약 사람을 본다면 그것은 곧 마치 세균, 미생물만도 못할 것이라고 나는 말했다. 그럼 만일 인류의 도덕이 부패하였고, 마치 사과 한 알과도 같은 이 지구가 썩었다면, 이는 내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그 경지 중에 있지 않으면 이런 것을 체득하고 관찰